

남북한 문학장에서 조명희 문학의 위상

임옥규*

〈차 례〉

1. 남북한 통합문학사 가능성과 기반
2. 남북한 근현대문학 선구자, 조명희적 경향
3. 코리안 디아스포라문학으로서의 전망

[국문초록]

남북한 문학장은 각각의 특성과 이념적 제약으로 인해 상호 이질적이며 배타적인데 이는 남북한 문학사의 구성과 서술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상호 재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문학사에서 공통적으로 주요하게 논의되는 작가 중 한 명인 조명희 작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의 문학은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유산으로 남북한 문학사 접점으로 존재한다. 그의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양한 문예활동은 한민족 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도 분단이라는 이념적 대립 상황과 사회주의 사상을 선택하여 소련에 망명하였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그의 문학사적 업적이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그의 방대한 문예와 문학관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기에 통합문학사적 측면에서 그의 문학사적 위상과 전망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 문학사 서술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남북한을 넘어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위상을 점검하는 실증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본고는 남북한에서의 조명희 연구사를 살펴보면서 특히 북한 평가의 역사적 변모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한 근현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명희적 경향을 근대화 비판과 사실주의 계보의 확장으로 보고자 한다. 그는 1920년대 피식민지 주체의 마음을 형상화하면서 식민지 시대의 굴절된 근대화를 비판하였고 그의 사실주의 창작방법론은 남북한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었다. 그가 구소련으로 망명한 이후 원동고려문단 활동 사

* 청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함을 통해서도 코리안 디아스포라문학으로서의 특색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다.

본고는 남북한 문학장에서의 조명희 문학의 위상을 다루고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화권에서 조명희 문학의 논리와 의미를 분석하여 남북한 문학 소통의 전망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조명희, 남북한 문학사, 코리안 디아스포라문학, 근대화, 마음, 사실주의

1. 남북한 통합문학사 가능성과 기반

본고는 조명희(1894~1938) 문학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을 비교 검토하고 남북한의 통합적 문학사의 주요 대상 혹은 요소로서 조명희 문학의 가치와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조명희 문학이 기존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했듯이 통일이대를 대비한 통합 문학사 서술의 일환이자 남북한을 넘어 코리안 디아스포라문학의 위상을 점검하는 근거로서의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깊게 다루지 않은 북한에서의 조명희 연구와 평가를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남북한 근현대 문학사에서 조명희 문학의 특색과 소련 망명 이후인 1927년부터 1938년 시기의 구소련 원동고려문단 활동 사항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문학장에서의 조명희 문학의 위상을 다루고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화권에서 조명희 문학의 논리와 의미를 분석하여 남북한 문학의 소통의 전망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한에서의 조명희 작가에 대한 평가는 문학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다가 1988년 7월 19일 월북문인 해금조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조명희 작가가 월북 작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작가로 인식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 카프 작가로 명명되는 조명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이며 일관된다.

남북한 문학사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KAPF(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문학은 북한 문학사에서 많은 부침을 겪는데 카프 작가들 중에서 남로당 계열이나 한철야 같은 이들이 정치적 숙청과 더불어 배제되는 등의 일을 겪는다. 이에 비해 조명희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유

는 그가 1930년대에 구소련에서 사망하여 해방 이후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관한 것은 남북한의 문학사와 선집, 문예지, 자료집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 문학사 기술 현황 및 선행 연구

남한 문학사에서 조명희 문학에 대한 기술현황은 해방 이후부터 살펴볼 수 있다. 백철은 『조선신문학사조사』(백양당, 1949)에서 「낙동강」이 신경향파 경향과 달리 계급투쟁을 주제로 하고 혁명운동가 주인공이 등장한 점에서 목적의식기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평한다. 조연현은 『한국현대문학사』(성문각, 1969)에서 「낙동강」이 초기 프로문학의 자연발생적 요소를 계급문학으로 전환시켜 프로문학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평한다.

김윤식은 『한국문학사논고』(법문사, 1973)에서 「낙동강」이 프로문학의 공식을 벗어나 세련된 서사양식을 지닌 1920년대 대표소설로 평한다. 윤홍로는 『한국근대소설연구』(일조각, 1980)에서 「낙동강」의 구조를 작가의 심층구조와 연관하여 문학적 성과로 제시한다. 김윤식, 정호응의 『한국소설사』(예하, 1993)에서는 임화의 초기 경향소설 평가(『소설문학의 20년』, 『동아일보』, 1940.4.1.6)를 소개하면서 조명희 문학을 박명희적 경향인 전망의 과장으로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을 농민계층의 생명력을 강렬하게 표현한 낙관적 소설로 평가한다. 김재용, 이상경, 오성호, 하정일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한길사, 1993)에서는 조명희의 카프문학의 성취를 제시하고 그의 작품이 모순극복과 새로운 삶에 대한 통찰을 나타낸다고 평가한다.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 1』(민음사, 2002)에서는 1920년대 회곡문학의 새로운 등장으로 조명희의 『과사』, 『김영일의 사』를 제시하면서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청년의 사상적 갈등과 윤리 의식을 문제 삼고 있다고 평한다. 이 책에서는 그의 초기 계열로 궁핍한 현실과 지식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환멸을 그린 「땅 속으로」, 「R군에게」, 「저기압」등과 농민의 가혹한 현실을 그린 「농촌사람들」, 「마음을 갈아먹는 사람」 등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그를

〈카프〉와 1920년대 농민소설 작가로 언급하고 「낙동강」이 계급적인 이념의 구현이라는 지향점을 드러냈다고 평한다. 이와 같은 계열로 「동지」, 「한여름 밤」, 「춘선이」, 「이쁜이와 용이」, 「아들의 마음」을 제시한다.

이외에 조명희 문학을 프로문학으로 규정하면서도 형식상의 미숙성을 들어 문학적 자살이라고까지 평가한 정한숙의 『현대한국소설론』(고려대출판부, 1977), 조명희의 초기작품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한 박혜경의 「조명희론」¹⁾(1999) 등의 논의가 있다.

조명희의 망명 후 문학 활동을 다룬 연구는 「소련에서의 조명희」²⁾에서 시작된다. 이 글은 『조명희 선집』을 바탕으로 하여 소련 망명 이후 조명희의 작품과 생애를 다룬다. 이외에 조명희의 망명 전후를 비교한 연구³⁾들은 재소 한인문학의 선구자로서 그의 문학을 다룬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지에서의 실증적인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연구 사업의 형태로 고려인 한글문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조명희 문학도 아울러 조명된다.⁴⁾ C·I·S 지역의 고려인 문학에 나타나는 디아스포라를 다룬 연구들은 고려인들의 이주사와 민족의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며⁵⁾ 고려인 민족정체성과 디아스포라에 대해 연구⁶⁾한다. 중앙아시아 이주 문인들을 다루는 연구는⁷⁾ 한민족 문화권이라는 범위에서 고려인 문학이 지닌 의미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고려인 한글 문학을 주도한 『선봉』 잡지를 다룬 연구는⁸⁾ 연해주에서의 조명희 문학 전체를 조명한다. 이외에 망명 이후 조명희의 작품 세계와 북한문

- 1) 정덕준 편, 『조명희』 새미, 1999.
- 2) 김성수, 「소련에서의 조명희」, 『창작과 비평』 17, 창작과비평사, 1989.6.
- 3) 민병기, 「망명 작가 조명희론」, 『비평문학』, 1989.9.; 김재홍, 「〈낙동강〉과 〈깃발고 고려〉의 한 고찰」, 『한국학연구』,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89; 김열규, 「조명희 문학에 나타난 '소비에트 문학관」, 『전망』, 1993; 이명재, 「포식 조명희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국제한인문학회, 2004.
- 4) 장사선·우정권, 「조명희의 연해주에서의 문학활동에 관한 연구」,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이명재 편저, 『소련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 5)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 월인, 2005.
- 6) 이명재·오창은 외, 『역암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구소련권 고려인 문학』, 한국문화사, 2004.
- 7) 김종희 엮음,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 8) 우정권, 『조명희와 『선봉』』, 역락, 2005.

단에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가⁹⁾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조명희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연해주 시절을 다룬 연구에서는 조명희의 작가적 시각이 코민테른과 소련 중심의 국제주의의 환멸을 드러낸다고 보면서 지구적 시각에 대한 자각을 제시한다.¹⁰⁾ 조명희 문학의 절대적 공간으로서 연해주를 분석한 연구는¹¹⁾ 민족주의적 색채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원동 고려인 문단의 민족문학적 위상과 의미를 다룬 연구는¹²⁾ 『로력자의 고향』, 『로력자의 조국』의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해 조명희 문학의 의미를 소비에트 고려인 문학과 한국 근대문학의 접점에서 찾는다. 조명희 문학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제기한 연구¹³⁾는 「낙동강」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유럽의 근대 서사에 맞서 조선적 시각을 제시한다고 평가한다. 조명희의 복권과 조중흡의 역할을 다루면서 코리아문화사로서의 의의를 다룬 연구¹⁴⁾는 조명희와 조벽암의 삶과 문학을 복원하여 통합 코리아문학사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의의를 지닌다.

2) 북한 문학사 및 선집, 문예지 인식

조명희 문학에 대한 평가는 북한 문학사에서 지속되게 중요하게 언급되는데 문학의 전통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조명희 창작방법론 평가의 내용이

9) 김낙현, 『조명희 시연구 - 구소련에서 발표한 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6집, 우리문화회, 2012; 임옥규, 『고려인 문학과 북한 문단광의 영향관계 - 조명희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3, 한민족문화학회, 2013.

10) 김재용, 『연해주 시절 조명희 문학의 재인식』, 『한민족문화연구』 60, 한민족문화학회, 2017.

11) 김영미, 『연해주 · 조명희 · 이데올로기 · 모국어』, 『현대문학이론연구』 7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12) 배은경, 『최초의 고려인 문학선집 『로력자의 고향』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슬라브학보』 34권 2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9; 배은경, 『원동고려문단의 마지막 문학선집 『로력자조국』의 기록적 가치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인문학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배은경 · 임영상, 『원동 고려문단의 형성과 그 초기작품 연구 -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역사문화연구』 5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5.

13) 고명철, 『제1차 세계대전의 시계를 통해 본 조명희의 문학』, 『한국언어문화』 66집, 2018.

14) 김성수, 『분단과 이산의 코리아 문학 - 포식 조명희와 벽암 조중흡』,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3호, 국제한인문학회, 2022.

다소 달라진다. 조명희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문학사, 전집, 문예지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1) 북한 문학사

북한 문학사는 사실주의 문예창작방법의 발전양상을 기준으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간행 시기별로 그 내용이 변모된다. 특히 문학의 전통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학사 서술의 중심이 된다. 북한 문학사 저술은 대부분 집체 연구로 이루어지는데 1956년 안함광의 『조선문학사』부터 2010년대 『조선문학사』(전16권)까지 발간되어 있다.

북한 문학사에서 195,60년대에는 <카프>(1925-35)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문학사의 전통으로 삼았으나 유일사상체제 이후 항일혁명문예와 카프를 동시에 중요시하다가 1986년 문학사에서는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만을 절대 유일의 혁명전통으로 대체하여 항일혁명문예가 북한문학의 전통임을 주장한다. 1990년대 주체문화론과 문학사에서 카프문예의 중요성이 다시 언급되지만 항일혁명문예 전통의 하위부분인 유산으로 제시된다.

북한 문학사를 최초로 저술한 안함광은 『조선문학사』(1956)에서 1900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의 사회, 정치, 역사적 변화 시기에 따른 문학의 변모양상을 다룬다. 안함광은 문학을 진보적 문학, ‘부르조이’ 문학, 사실주의 문학의 발전 양상 등으로 구분하면서 카프의 출현을 중시하는데 조명희 작가를 초기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인식한다. 그는 이러한 경향으로 조명희의 『땅 속으로』(1925), 『R군에게』(1926), 『락동강』(1927) 등을 제시하는데 특히 『락동강』이 혁명적 낭만주의 전통의 필두임을 강조한다.¹⁵⁾ 1964년 판 『조선문학사』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의 대학교재용인데 안함광은 19세말-1919년, 1920년대를 다룬 문학사를 담당한다.¹⁶⁾

15) 안함광,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56, 138쪽.

16) 안함광, 『제7장, 조명희』, 『조선문학사』(10): 1920년대 문학, 고등교육출판사, 1964, 324~447쪽. 김성수 연구자에 의하면 1964년에 김일성종합대학 어문연구실에서 기획한 총 16권짜리 문학사는 남한 학계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10권에 따르면 안함광은 1920년대 문학사를 비판적 사실주

『조선문학통사 하』(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 연구실 편, 과학원출판사, 1959)에서는 안함광의 문학사 시기구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문학사에서도 카프의 출현을 중시하면서 초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특질을 잘 나타내는 작품으로 조명희의 『땅 속으로』, 『R군에게』, 『락동강』를 제시한다. 이외에도 조명희의 『농촌사람들』(1927), 『미음을 갈아먹는 사람』(1926), 『새길』, 『이쁜이와 룡이』 등이 이전의 관념철학에서 벗어나 긍정적 주인공을 형상화하면서 혁명적 낭만주의 색채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평한다.

1967년 유일사상체제 이후에 북한 문학사는 근현대의 시기구분을 1925년 전후로 나눈다. 이는 북한의 문학사 서술에서 과거의 문학사적 전통으로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⁷⁾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박종원, 최탁호, 류만,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에서는 이전의 문학사 구분시기인 ‘1900-1919년’, ‘1920-1930년’ 시기를 ‘19세기 말-1925’로 변경한다. 이 책에서는 1920년대 진보적 낭만주의 경향의 대표작으로 조명희의 희곡 『파사』(1923), 시 『봄잔디밭우에』(1924)를 제시한다. 또한 착취사회에 적극 항거하는 인간을 형상화한 초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조명희의 『농촌사람들』(1926)을, 식민지 인테리들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울분과 반항의식을 반영하는 대표작으로 조명희의 『땅속으로』(1925), 『저기압』(1926)을 제시한다.

1980년대 북한문학사에서는 진보 작가로서 조명희의 시 『봄 잔디밭우에』와 소설 『농촌사람들』, 『땅속으로』가 언급되고¹⁸⁾ 조명희의 작품이 실려 있

의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의 발전과정으로 알개를 짜고,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의 형성 발전과 관련하여 제3장 라도향, 4장 김소월을 배치하고 제5장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의 형성 발전, 6장이 시기 평론, 7장 조명희(324~447쪽), 8장 최서해, 제9장 리기영 송영 윤기정 김영팔, 10장 리상화, 11장 김창술 순으로 서술한다. 김성수, 『분산과 이산의 코리아문학-포석 조명희와 벽암 조중흡』, 『국제한인문학연구』 33호, 국제한인문학, 2022, 20~21쪽.

17) 북한의 항일혁명문학예술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 빨치산 무장투쟁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데 1926년에서 1945년 이전에 창작, 감상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1926년 10월부터 1930년대의 항일혁명을 중시하면서 이 시기에 항일혁명 문학예술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혁명적 문학예술의 원형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18)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 73~200쪽.

는 외국에서 발간된 『시월의 노래』(1960), 『꽃피는 땅』(1988) 등이 북한 문학사에 편입된다.¹⁹⁾

『조선문학사(1926-1945)』(김하명, 류만, 최탁호, 김영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에서는 항일혁명투쟁 과정에서 창조된 혁명적 문학예술의 형태를 중심으로 문학예술을 제시하는데 이전의 문학사에서 다루었던 동시대의 문학을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 발전한’ 진보적 문학이라 언급한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조명희의 단편소설 『락동강』을 제시하고 그의 평론 「(힘)의 예술을, (힘)의 예술가들」(1927)이 박영희나 김기진 류의 부르주아 미학관과 관념론적 견해를 폭로배격하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원론적 입장을 뚜렷이 표명하였다고 풀이한다.

『조선문학사 2』(은중섭,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에서는 항일혁명투쟁 시기 문학을 중심으로 문학사를 구분하면서 조명희의 「〈힘〉의 예술을, 〈힘〉의 예술가들」(1927)을 소개하고 1920년대 후반기 노동자와 농민의 대중적 투쟁을 잘 형상화한 작품으로 조명희의 「락동강」을 분석한다.

『조선문학개관(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정홍교, 박종원, 사회과학출판사, 1986)에서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발전과정을 ‘신경화파, 염군사 조직, 파스칼라 조직, 카프 결성’이라 보면서 조명희의 「농촌사람들」(1926)을 새로운 시대요구를 반영한 대표작으로 제시한다.

『조선문학개관(1920년대 후반기-1980년대 전반기)』(박종원, 류만, 사회과학출판사, 1986)에서는 1926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를 항일혁명투쟁 시기 문학으로 제시한다. 카프문학에 대해서는 작가별 소개에서 아주 짧게 언급할 뿐이다. 이 책에서는 문학예술로는 송가나 불후의 고전적 명작 등을 제시하고 조명희의 「락동강」을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 발전한 진보적 문학의 대표작으로 선정한다. 이 책에서는 이 소설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선진적 인테리의 전형을 등장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면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할 투쟁방도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평가한다.

19) 조명희 외, 『꽃피는 땅』, 알마아파: 사수식출판사, 1988.

또한 조명희의 1928년 이후 소련 연해주 활동을 소개하면서 산문시 「짓밟힌 고려」, 「10월의 노래」, 「너자들격대」, 「맹세하고 나서자」, 「볼셰비크의 봄」 등이 일제에 빼앗긴 조국에 대한 사랑과 사회주의 소련의 건설투쟁과 생활에 대한 긍정과 공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한다.

『주체문학론』(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에서 「유산과 전통」으로 카프 문학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 이후의 작품을 사회주의 사실주의라 칭하지는 내용이 대두되면서 조명희의 『낙동강』은 막연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아닌 사회주의 사실주의 작품으로 인정된다.²⁰⁾

『조선문학사 9(192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기 문학)』(류만, 리동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에서는 김정일의 『주체문학론』(1992)에서 카프의 강령 이후 이를 따른 작품들인 조명희의 『낙동강』 등은 사회주의사실주의 계열로 볼 수 있다고 한 내용을 중요하게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사명을 강조한 조명희의 수필 「〈힘〉의 예술을, 〈힘〉의 예술가들」을 고평하고 「낙동강」이 목적의식적인 투쟁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조선문학사 7(19세기 후반-1926년 문학)』(류만, 리동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에서는 조명희의 「땅속으로」(1925)가 관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작가의 체험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낭만주의적이며 선언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본다. 이 작품과 함께 조명희의 「저기압」, 「가난한 사람들」을 초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표작으로 제시한다.

(2) 문예지, 단행본, 문학선집

조명희에 대한 연구나 기사는 1956년부터 1959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소련에서 1956년에 조명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소련 작가동맹으로서의 지위를 회복²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명희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는 1967년까지 단행본이나 『조선문학』, 『문학신문』, 『청년문학』, 『로동신

20)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2쪽.

21) 양원식, 「조명희 선생에 대한 몇가지 새로운 자료」, 『레닌기치』, 1990년 4월 4일자. “쏘련공산당 제××차대회후 1956년도에야 조명희선생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쏘련 작가동맹 맹원으로서의 지위도 회복되었다.”

문』 등의 문예지에서 소개한다.²²⁾

조명희 연구로는 1950년대에 출간된 『조명희 연구』²³⁾와 『포석 조명희 선집』²⁴⁾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조명희 연구』는 작가의 문학적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한다. 이 책은 조명희 문학의 의의를 소설에서 찾고, 신경향파문학의 특징으로 빈공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평한다. 이 책은 북에서 조명희 작가론을 다룬 첫 번째 서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조명희 작가의 말년과 사망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한다. 이는 당시 친소적 경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 오류는 1992년 자료에서까지 반복된다.

북한에서의 조명희 평가는 카프의 핵심인물이며 신경향파 문학과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로 제시된다.²⁵⁾ 그의 「락동강」은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 받는다.²⁶⁾ 신문과 문예지에 실려 있는 조명희 기사를 살펴보면, 한식은 국제주의의 측면에서 「낙동강」 내용을 제시하고²⁷⁾ 김재하는 조명희의 1925년 전후의 작품이 프롤레타리아 문학 개척의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²⁸⁾ 김현순은 엄호석의 ‘조명희론’을 분석하고²⁹⁾ 이기영은 포석에 대한 회상을 한다.³⁰⁾

『포석 조명희 선집』은 조명희 탄생 65주년을 기념하여 소련과학원 동방도서출판사에서 1959년에 출판한 작품선집이다. 소련작가동맹은 ‘조명희문학

- 22) 박창복, 「서정적인 요소(『락동강』에 대해)」, 『문학신문』 1966년 2월 18일자, 3쪽; 최계석, 「단편 「락동강」의 창작적 특성」, 『문학신문』 1963년 1월 11일자, 2쪽; 리규철, 「〈조명희 선집 락동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6년 7월 25일자; 「〈작가와 작품〉 포석 조명희」, 『문학신문』, 1957년 3월 28일자, 3쪽.
- 23) 엄호석, 「조명희 연구 - 그의 인간과 예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김현순, 「엄호석 작 『조명희 연구』에 대하여」, 『문학신문』, 1959년 9월 26일자, 3쪽; 한설야, 「정열의 시인 조명희」, 『문학신문』 1958년 8월 21일자, 2쪽; 강태수, 「기억의 한 토막」, 『문학신문』 1959년 5월 7일자 3쪽.
- 24) 황동민 편, 『포석 조명희 선집』, 소련과학원동방도서출판사, 1959.
- 2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편, 「1919~1930년의 문학」, 『조선문학동사 : 현대문학』, 1958.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해제」, 『현대조선문학선집』(소설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쪽.
- 26) 한중모, 「《카프》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발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년 6호.
- 27) 한식, 「조선문학에 나타난 국제주의 사상」, 『문학과 전진』, 1950.8.(이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태학사, 1993, 513쪽 참고)
- 28) 김재하, 「포석 조명희의 소설 연구」, 『조선문학』, 1956. 9., 172쪽.
- 29) 김현순, 「엄호석 작, 『조명희 연구』에 대하여」, 『문학신문』, 1957년 9월 26일자, 3쪽.
- 30) 리기영, 「포석에 대한 나의 인상」, 『문학신문』 1962년 2월 20일자, 2쪽; 리기영, 「추억의 몇 마디 - 포석 조명희 동지」, 『문학신문』 1966년 2월 18일자, 3쪽.

유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선집을 출판한다.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소련 작가 동맹은 북한에 조명희의 문학유산을 수집하기 위한 광고를 발표한다.³¹⁾ 이후 북한 기사에는 소련에서 출판될 조명희 작품집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³²⁾

이 선집은 조명희의 초기 작품부터 1937년 5월 15일까지의 시, 소설, 정론, 소품, 서한 등을 게재하고 해제(편자 황동민의 서문)와 부록(리기영, 한설야, 강태수 회상기)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리기영은 「포석 조명희에 대하여」에서 「민주빨치산」이라는 미발표 작품에서 조명희가 홍범도의 의병투쟁부터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의 투쟁까지 조선 빨치산의 활동을 서사시적 화폭으로 담으려 하였다고 한다.³³⁾

〈현대조선문학선집〉은 1957년부터 1961년까지의 『현대조선문학선집』과 1987년 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으로 나누어진다.³⁴⁾ 조명희의 작품은 『현대조선문학선집(소설집) 1』(1957)과 『현대조선문학선집(희곡집) 7』(1958)에 실린다.³⁵⁾ 1980년대에 북 문학의 정진 작업에 해당되는 『현대조선문학선집』이 다시 기획되면서 조명희 소설이 『현대조선문학선집(11) 소설집 락동강』(1991), 시 작품이 『현대조선문학선집 15 1920년대 시선(3)』(1992), 수필이 『현대조선문학선집 22 1920년대 수필집』(2001)에 실린다.³⁶⁾

『현대조선문학선집 1 소설집』에서는 나도향, 이익상, 최서해와 조명희 단편소설을 비교한다. 이 책에 의하면 나도향 문학에는 자연주의와 사실주의가 공존하고 계급 모순을 힘 있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익상과 최서해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창시자로 출발하여 신경향파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31) 「소련 작가 동맹 조명희 문학 유산 위원회로부터」, 『문학신문』 1957년 9월 5일자, 3쪽.

32) 기사, 「소련에서 출판될 조명희 작품집」, 『문학신문』, 1959년 8월 28일자, 3쪽; 기사, 「소련에서 포석 조명희선집이 발행된다(59.12 소련 과학원 동방도서 출판사)」, 1959년 11월 20일자, 1쪽.

33) 「포석 조명희 선집」, 1959, 533~534쪽.

34) 남원진, 「현대조선문학선집의 구성원리와 균열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19(2), 한국근대문학회, 2018, 264쪽. 이 글에 따르면 1950년대 시기 선집은 '현대조선문학의 우수한 작품들을 총망라'하고 1987년 이후 선집은 '새롭게 발굴 보충된 문학작품들'을 수록한다.

35) 조명희, 『낙동강』, 문화출판사, 1950;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7) : 희곡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36)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편, 『락동강』 현대조선문학선집(11), 문예출판사, 1991; 류희정 편찬, 『1920년대시선(3)』(현대조선문학선집(1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류희정 편찬, 『1920년대 수필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조명희는 한설야 이기영 등과 함께 사회주의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가 된다.

『현대조선문학선집 7 희곡집』에서는 조명희, 김수산, 진우춘, 김두용, 한설야, 이기영, 송영 등의 장단막 희곡을 수록한다. 이 책에서는 조명희의 『파사』에 대해 카프의 전통과 사회주의사실주의 창작방법을 탁월하게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이 희곡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철학, 정서, 감각 등이 다채롭게 반영된 점을 높게 평가한다.

『현대조선문학선집 11 락동강』에서는 조명희가 낭만주의에서 현실주의로, 관념적 세계에서 벗어나 조국애를 구현하는 작품으로 나아가면서 사실주의 문학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는 그의 1920년대 문학을 1925년에서 26년, 1926년 말에서 1927년, 1928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선집에서는 그의 사실주의 문학의 시작으로 『땅속으로』(1925)를 제시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경향성을 보이는 단계라고 평한다. 그가 대중투쟁에 앞장 선 주인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R군에게』(1926), 『동지』(1927)를 거론하면서 이후 『락동강』(1927) 등에서의 인물형상화보다 높은 경지에 올라선다고 평한다. 그가 소련에서 발표한 산문시 『깃땀한 고려』(1928)가 조국애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잘 노래하고 있다고 평한다. 이 선집에서는 그의 자서전적 장편소설 『피보다 더 붉다』가 윤독 중 분실되었고 1942년에 병사한 것으로 소개한다. 그의 소설 중 프롤레타리아 소설문학의 주제와 사상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작품으로 『락동강』, 『춘선이』 등을 제시한다.

『현대조선문학선집 15 1920년대 시선 (3)』에서는 <카프> 시문학의 1920년대 후반기 카프 시인들의 작품을 발굴정리하면서 조명희 작가를 포함하여 이상화, 김창술, 박세영, 박팔양, 박아지, 리호, 조운, 정지용, 양주동, 이은상, 심훈, 남궁벽, 이병기, 정로풍, 류창선, 엄홍섭, 신석정 등 30여 문인의 작품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이외에 26여 시인의 작품을 첨가한다.

이 책은 『주체문학론』에서 <카프> 문학과 <신경향파> 문학에 대해 응당한 위치에서 옳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을 언급하면서 <카프> 계열에서 중요한

작가로 조명희의 일생과 작품을 소개한다. 조명희의 초기 시작품 중 『봄잔디밭우에』(1926)가 애상적이며 허무적이고 종교적 색채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당대 현실을 체험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어서 1928년 이후의 시 『깃뻘힌 고려』 등이 일제의 약탈적 본성을 규탄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지향을 잘 형상화한다고 평한다.

『현대조선문학선집 22 1920년대 수필집』에서는 조명희, 이기영, 최서해, 방정환, 나도향, 현진건, 박팔양, 이상화, 심훈 등의 수필 90여 편을 게재한다. 여기에서는 수필다운 체모를 사회, 문학, 인간을 투시하는 작가의 태도와 입장, 체취와 숨결에서 찾으며 수필의 의의를 시대관, 미학관, 인생관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역사 자료적 가치성에 둔다. 이와 관련하여 조명희의 수필 『〈힘〉의 예술을, 〈힘〉의 예술가들』이 1920년대 후반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의 투쟁을 잘 형상화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표 1〉 북한 『현대조선문학선집』 조명희 작품 수록 현황

1957년	1958년	1991년	1992년	2001년
현대조선문학선집 (소설집) 1	현대조선문학선집 (희곡집) 7	현대조선문학선집 11 단편소설집 락동강	현대조선문학선집 15 1920년대 시선(3)	현대조선문학선집22 1920년대 수필집
땅속으로 R군에게 농촌사람들 저기압 새 거지 한여름밤 박군의 로맨스 락동강 춘선이 아들의 마음	파사	땅속으로 농촌사람들 R군에게 저기압 마음을 같이먹는 사람 새 거지 동지 한여름밤 락동강 박군의 〈로맨스〉 춘선이 이쁜이와 룡이 아들의 마음	성숙의 축복/ 경이/봄/봄잔디밭우 에/내 못건디여 하노 라/달 쫓아/동무여/ 새봄/불비를 조소서/ 감격의 회상/아침/나 의 고향이/별빛으로/ 닭의 소리/하야곡/내 명훈의 한쪽 기행/번 뇌/스핑크의 비애/어 떤 동무/원숭이가 새 끼를 낳았습니다/어 린 아기/〈어둠의 겹〉 에게 바치는 서곡/운 저자 사람이/나에게 반성의 락원을 다고/ 세 식구/농촌의 시/ 제목없이/무제/깃뻘 힌 고려	느껴 본 일 몇가지 《힘》의 예술을. 《힘》의 예술가들 생활기록의 단편 김수산군을 회함 여름밤 뜬 생각 조선의 가을

2. 남북한 근현대문학 선구자, 조명희적 경향

조명희 초기 문학은 일본 유학시절인 1920년부터 1924년까지로 그는 이 시기에 시, 최초의 창작 희곡집인 『김영일의 사』(1923), 톨스토이 희곡 번역 『산송장』(1924), 최초의 투르게네프 번역인 『그 전날 밤』(1924) 등을 발표하고 중기에 해당되는 1925년부터 1928년까지는 조선으로 귀국하여 소설을 창작하였다. 그는 프로문학의 선구적 소설인 『낙동강』(1927), 망명지에서 모국어로 노래한 『짓밟힌 고려』(1928) 등을 발표하여 식민지 조선의 고통과 항거의 정신을 다루면서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50년대 소련 조명희문학위원회가 출간한 『조명희 선집』(1959)을 보완한 2020년도 증보판 『조명희 포석 전집』(동양일보·포석기념사업회)에 의하면 그는 망명 이전에 시 54편, 소설 12편, 희곡 2편, 수필 18편, 평론 4편, 망명 이후에는 시 9편, 동요 7편, 평론 7편, 유실 소설 2편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방대한 업적을 통해 전 장르에 걸친 그의 선구자적 안목을 확인할 수 있다.

조명희는 식민지 현실의 고통과 억압을 반영하여 당시 감상적이고 퇴폐적인 낭만주의 소설에서 벗어나다. 또한 당시 계급주의 문학이 보여주는 궁핍한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의 현실부정 양상을 벗어나 현실을 조망하고자 한다. 그의 『낙동강』은 이러한 경향으로 평가받는다.

1920년대 문학은 낭만주의, 상징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등이 혼재하던 시기로 주도적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조명희는 ‘힘’의 문학을 강조하여 목적성 있는 문학의 형태를 선보인다. 당시 탈식민의 시각을 제시하면서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1) 1920년대 근대화 비판, 피식민지 주체의 ‘마음’ 고찰

192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본격화되고 경제수탈이 심화된 시기로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고조되던 시기다. 이 시기 한국문학사에는 식민지 현실의 궁핍과 가난을 반영하는 문학적 경향이 나타난다.

조명희는 소설을 통해 당시 굴절된 식민지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반영한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는 현실에 불만을 가진 지식인이 등장하지만 점차 계급의식을 각성하고 민족해방 사상으로 나아가는 인물이 등장한다. 「땅속으로」(1925)에서 막연한 현실비판 의식이 제기된다면 「농촌사람들」(1926), 「저기압」(1926) 등에서 계급의식을 각성하는 인물이 형상화된다. 「낙동강」 이후에는 주요인물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반영으로 나아간다.

그의 수필 「생활기록의 단편」(1927)에서는 ‘타고르의 신낭만주의’에서 ‘고리키의 사실주의’로 선회하고자 하는 작가적 고민의 양상이 드러난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그의 작품 속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은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태도로 현실을 타파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모된다.

조명희는 작품 속에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를 타파할 해답을 찾으려 한다. 이는 식민지 사회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요 인물의 내면을 통해 드러난다. 초기 소설에서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꿈’의 형태로 항거, 살인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만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는 결말을 맺는다.

조명희 소설에는 피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마음’이 정교하면서도 매섭고 날카롭게 형상화된다. 「땅속으로」에서는 식민지 현실 하에 생활난으로 모욕당하고 불행한 ‘나’의 마음이 형상화된다. 화자는 유학생 지식인이지만 생계 수단을 찾을 수 없다. 그는 참혹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부부의 정조차 생각할 수 없는 조선 사람의 처지에 아내를 외면하고 파산과 강도질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련애가 다 무엇이라, 피 마른 조선사람에게도 련애가 있나? 애정 없는 안해하고 살아나가 보자. 쓴맛이 얼마나 대단한가? 거지는 살림 못하나 고생맛이 얼마나 대단한가 좀 견디어 보자. 히는 생각이 반발적으로 일어나 살림하고 살겠다고 대답하 말하였다.

조선사람에게는, 아니 내게는 이것조차 뺏어갔구나! 우주 생명으로부터 내여버린 자식이로구나. 그러나 어디 좀 견디어 보자. 밖에는 지금 야단이 났다. 늦은

가을의 야단이 났다. 한없이 높은 하늘에, 바람은 그 복판을 치며 굴러간다. 보라,
(중략)

그 이쁜 호령 아래에 이 산 밑 곤두박질이다. 땅우에 곤두박질이다.³⁷⁾

『마음을 갈아먹는 사람』(1926)에서는 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온 ‘삼득이’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부인의 매음으로 살아가다 부인에게도 버림받는 이야기가 전개되다. 이 소설에서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 받는 현실에서 지조도 정조도 의리의 마음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비판한다. 조명희의 일련의 소설에는 애당초 지킬 마음을 가질 수 없는 피식민인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난다. 『새 거지』(1926), 『한여름밤』(1927)에서도 거지로 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참한 운명을 형상화한다. 『농촌사람들』(1926)에서는 일제 제국주의 아래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평등과 착취에 항거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형상화된다. 『저기압』(1926)에서는 생활난, 직업난으로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인물의 공포와 공황의 상태를 갑갑하게 비 내리는 상황으로 표현한다.

《이것도 권태를 조화시키는 한 흥분제인가?》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따위의 씹스름한 가난살이 맛도 자기 생활의 훌륭한 체험이요, 또는 정신상의 무엇을 얻는 것도 같아서 고통의 주먹이 와서 때릴 때마다 그것을 신성시하고 경건한 마음씨로 대하여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찌달리기만 하나까 내중에는 그만 몸과 마음이 까부러져가기만 할뿐이다.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이까부러져가는 권태 속에...³⁸⁾

『이쁜이와 룡이』(1928)에서는 사랑을 쫓아 시집간 부잣집을 버리지만 가난을 경험하자 사랑을 배신하고 돈을 쫓아 돈 많은 집의 첩으로 들어가는 ‘이쁜이’가 형상화된다. 이 소설은 부르주아적 인간의 변하지 않는 속물적 근

37) 조명희 외, 『단편소설집 락동강』, 문예출판사, 1991, 32쪽, 37쪽.

38) 위의 책, 85쪽.

성을 비판한다.

그의 작품에는 유랑자, 이민자가 많이 등장한다. 『춘선이』(1928)에서는 이민 오는 일본인들로 타지로 더 쫓겨나가는 조선인들의 처지가 그려진다. 이 소설의 주인공 ‘춘선’은 간도로 떠난 결심을 하나 일본이나 간도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어디에서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조선인의 처지를 깨닫는다.

조명희 소설에서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항거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형상화된다. 지식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서간체 소설인 『R군에게』에서는 관념적으로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표출된다. 이러한 관념적 의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나아간다. 『아들의 마음』(1928)에서는 일본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나’가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모습이 형상화된다. ‘나’는 신문을 통해 옛사랑이 중국에서 북벌군 활동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고무되어 자신도 메이데이 행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는 어머니 사랑에 대한 보답보다 사회주의로 시대를 이겨나가 것이 더 우선이고 정답이라는 주체의식을 나타낸다. 이 소설에서는 민족해방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조선인과 중국, 일본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희망하는 결론을 선보인다.

《팔 하나 없는 몸이 앞으로 어찌 먹어가며 어찌 일을 잘하여나가느냐 말이다… 아니다 더욱 더 힘써 나가자! 인제 내 앞에는 다른 아무 소망이라고는 하나 없다. 오직 일뿐이다… 이 팔이 이 모양으로 된 것이 오히려 나를 사회주의혁명투사로 만든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며 전일보다 더 마음이 당당해질 때도 많다. 허나 또 한 옆으로 생각할 때

(중략)

《어머니, 나는 당신을 영영 저버릴 때가 필경은 있고야 말리다.》³⁹⁾

39) 위의 책, 163쪽.

《어머니, 저는 하는수 없이 인제 아주 어머니를 저버리게 됩니다…집에 가서 어머니를 모실수는 없습니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주먹은 더 힘있게 쥐여 졌다. (중략)

금순의 비행기가 남중국 공중에 높이 떠서 적군을 향하여 매같이 달려 날아가리 라고 생각할제 나와 나의 친구들의 힘있고 무거운 발들은 혁명의 거리를 구르며 걸어나갔다.⁴⁰⁾

한국문학사에서 1920년대는 3.1 운동 이후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문학적 형식이 다양하게 전개되던 시기다. 조명희 작가는 소설에서의 구체적 인물 형상화를 통해 근대적 주체로서 살 수 없는 피식민인의 또 다른 주체의 마음을 사실적이면서 새로운 시각을 통해 형상화한다.

2) 사실주의 창작방법과 계보의 확장

남북한 문학사에서 조명희 문학을 사실주의 문학의 계보로 보는 점은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의 문학에 나타난 낭만성, 영웅성에 대해 북한 문학에서는 낭만주의, 관념주의로 치부하고 남에서는 신낭만주의 현상으로 고찰하기도 한다. 남한 문학사가 그의 문학적 경향을 프로문학과 사실주의로 본다면 북한 문학사에서는 사회주의사실주의로 확장시킨다.

조명희 문학은 1920년대 사실주의 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태동시킨다. 1920년대 문학은 낭만주의, 상징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등이 혼재하던 시기로 주도적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조명희는 ‘힘’의 문학을 강조하여 목적성 있는 문학의 형태를 선보인다. 당시 탈식민의 시각을 제시하면서 일제 강점기 현실에서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그는 현실을 해부하고 비판하여 체험과 지식 위에 사상의 기초를 쌓고자⁴¹⁾ 하여 그의 문학은 주로

40) 위의 책, 166쪽.

41) 조명희 「생활기록의 단편 - 문예에 뜻을 두던 때부터」, 『조선지광』 65호, 1927.3.

사회현실을 계급의식적인 이데올로기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망명 이전인 1922년부터 1928년까지에 해당되는 그의 작품들은 남한에서는 프로문학의 정점으로, 북한에서는 비판적 사실주의에서 사회주의사실주의로 나아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명희 문학을 통해 남북한의 1925년부터 1935년 카프 문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남북한에서 동시에 그의 문학사적 의의로 제시하는 『낙동강』은 당대 현실의 전체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인물형을 제시한다. 사회주의 이념과 민족주의 사상을 지닌 주인공을 형상화하여 일제로 인해 야기되는 식민지 조선의 계급적, 민족적 수난 타파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전의 프로문학에서 진일보하여 민족해방 투쟁의 전망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문학은 제자들인 시인 강태수, 김중손, 김준, 김광현, 한 아나톨리, 조기천, 김두철, 전동혁, 산문작가 김기철, 고려극장의 초대 극작가 연성룡, 희곡작가 대장춘 등으로 그 일부는 해방 이후 북한에 소비에트 문학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조기천은 해방직후에 『두만강』(1946), 『백두산』(1947) 등을 발표하여 북한문학에 장편서사시 장르를 전파하고 항일혁명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을 창작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조명희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나아가면서 국제주의적 시각을 겸한다.

3. 코리안 디아스포라문학으로서의 전망

조명희는 충청북도 진천 태생(1894.8.10.)으로 서울에서 공부하고 일본 도쿄에서의 유학 생활을 거쳤으나 <카프> 활동으로 인해 일제의 핍박을 받게 되자 소련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땅으로 망명(1928. 7)하였다. 그의 다양하게 변모되는 문학세계는 일본에서의 유학시절, 조선으로의 귀국, 소련으로의 망명이라는 공간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인의 러시아 연해주 정착은 18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빈곤과 국정혼란으로 연해주로 떠난 사람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신한촌을 건설하였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강압을 벗어나거나 일제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수난을 피해서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로프스크는 민족의 한과 설움이 서린 곳이다. 이곳에 터전을 닦던 고려인들은 스탈린의 민족이주정책에 의해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다.

소련으로 망명한 조명희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와 애정과 환상을 지닌다. 하지만 소련의 제도나 정책의 비판을 전제로 한 문학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명희 문학에는 민족적 삶과 사회주의 현실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소련작가동맹의 유일한 조선인 문학가이면서도 소련 국적 취득을 거부했던 그는 1938년 4월 15일에 “일제를 위하여 간첩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 받았으며 1938년 5월 11일에 총살을 당하였다. 그에 대한 명예회복은 소련에서 1956년에 이루어졌는데 사회주의 리얼리즘 조성의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⁴²⁾

조명희는 연해주에 이주하여 192,30년대 고려인 한글 문단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소련으로 망명한 이후인 1928년부터 1938년까지 그는 망명지에서 한글문학을 개척하고 산문시, 단편서사시,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문예작품을 발표하였다. 『고려일보』의 전신인 『선봉』은 1923년에 창간되었고 이 신문은 소련에 의한 조선인 강제이주가 이루어진 1937년까지⁴³⁾ 고려인 문학의 주요한 발판을 이루었다. 조명희의 주도하에 발간된 『로력자의 고향』(1934), 『로력자의 조국』(1937)은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효시로 평가받는다.⁴⁴⁾

당시 소련 정부는 고려인의 모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했으며 조선어

42) 이러한 내용은 최에리카께리나의 기고문 「조명희의 마지막 시기」와 아 쭈뚜판의 글 「귀환」이 게재된 『고려일보』(1991.8.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정상진 저, 양원식 역, 「내가 겪은 강제이주 - 회상기」, 『고려문화』 통권 2호, 2007, 193~200쪽.

44) 최재봉, 「『로력자의 고향』…연해주 망명 문단의 ‘문예지 1호’ 찾았다.」, 2018년 9월 4일자. 김재용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와 중국, 일본 등지로 삶의 터전을 옮겼지만, ‘망명 문단’이 형성된 곳은 연해주가 유일하다”며 “『로력자의 고향』은 오늘날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효시로서도 문학사적 의미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교육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장치들을 마련한다.⁴⁵⁾ ‘원동 고려문단’은 『선봉』 신문에서 발견되는 명칭으로 고려인 문학이 지역적으로 ‘원동’(극동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문학창작자들은 ‘문단’이라는 일종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는데⁴⁶⁾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모국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소련은 소수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방법적 전략으로 모국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당시 고려인 문단은 소련의 이념과 정서를 담은 문체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과 결별의 문제로 논쟁하기도 하였다.⁴⁷⁾

조명희는 『선봉』의 문예면 지도를 맡는 한편 여러 편의 시, 산문, 소품, 서한 등 12편의 글을 발표한다. 『로력자의 고향』에는 이전의 다섯 작품이 『로력자의 조국』에는 머리말과 이전의 세 개의 작품과 평론의 글이 두 편이 실려 있다.

『짓밟힌 고려』(1928. 10)에는 일제에 대한 분노를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실제적인 조국 공간인 조선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이 시는 일제에 짓밟힌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프롤레타리아의 결속된 힘을 이끌어낸다. 이 시는 억압 받지만 낙심하지 않는 민족의 서사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산문시 장르를 활용하여 집단적 공동체 의식을 고양한다. 고려의 억압받는 이들의 참상을 전하며 ‘우리’의 힘을 믿는 이 시에 이어 『십월의 놀애』(1930.9, 1917년 10월 혁명 기념)에서는 소련을 사상적 모국으로 지칭한다. 이는 작가가 처한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반영한다.

『로력자의 조국』(1937) 머리말 마무리에는 ‘조국’, ‘원수’, ‘소비에트’가 동시에 호명된다. 한 편의 시와 같이 마무리되는 이 글에는 원수가 우리 조국을 짓밟으려 할 때 소비에트 애국주의자처럼 이겨낼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맹서하고 나아서자』(1934.4), 『까르뜨여, 너의 짐이 크다! - 조선

45) 배은경, 앞의 책, 2019, 99쪽.

46) 배은경·임영상, 『원동 고려문단의 형성과 그 초기작품 연구 -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역사문화연구』 56, 2015, 249쪽.

47) 『우리의 실재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해부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위대한 시기에의 가장 값있는 문예작품을 창작하자!』, 『선봉』, 1934년 6월 3일자.

인 사범대학 제일회 졸업생들 앞에-」, 『아우 채옥에게』에도 이어진다. 조국을 상실한 조선인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념적 조국인 소련을 사랑하지는 다짐이 제기된다.

『볼셰비크의 봄』(1931.3)은 소련에서 1928년에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녀자공격대』(1931.3)에서는 여성 노동력의 참여를 권장한다.

『이류분자들의 작품을 따로 떼어서』(1937)에서는 『로력자의 고향』에 실렸던 최호립의 장편 서사시 『씨비리아 철도행』(1934)이 일본침략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혁명적 정신이 부족하고 민족적 형식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비판한다. 또한 그가 자신의 시적 형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려인 문단의 유일용, 한 안나톨리, 김해운 시를 퇴짜 놓고 짝을 자르고 있는 점에 대해 거세게 비판한다.

망명 후 조명희 문학에는 정치적 이념과 민족적 현실의 경계에서 조선 문학, 조선고려인 문학, 소련문학의 연계와 분화가 나타난다.

조명희 문학에서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추구하고 유토피아 공간을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민족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역사적 장소를 통해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의 소설 『낙동강』에는 일제 강점기에 조국에서 억압과 핍박을 받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민자 삶의 애환과 생존의 열망이 나타난다. 이 작품은 주인공 박성운이 일제의 핍박으로 조선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서간도, 남북 만주, 노령, 북경, 상해 등지로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하다 조선으로 들어올 무렵에 그의 사상이 민족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로 변하게 된 것을 주요 줄거리로 삼는다. 『짓밟힌 고려』에서는 일제에 의해 억압받는 조국의 현실을 폭로한다. 이 시에서는 ‘고려의 땅’에 대한 강렬한 회복 의지를 나타낸다.

조명희는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조국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까드리어, 너이의 집이 크다!』에서는 고향에서 쫓겨나고 타지에서 살던 조선인이 쏘베트 정권 안에서 우수한 일군이 되어 보상받을 것을 당부한다. 조명희는 『아우 채옥에게』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무산자인 조국(소련)과 무산자가 될 조

선을 함께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짓밟힌 고려』와 『고려땅에 정말 태양이 비칠 때』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입장에서의 ‘조선 땅 냄새’가 코를 찌른다면 『흑룡강가』와 『꿈소물쓰크』에서는 ‘쏘베트 땅냄새’가 물컹물컹 낫다.”⁴⁸⁾는 평을 받기도 한다.

『로력자의 고향』이 발간된 1934년은 소련에서 소비에트 작가동맹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창작방법을 선포한 해이며 조명희가 소비에트 작가동맹의 유일한 조선인 문학가로 추대 받은 해이기도 하다. 1934년에 소련작가동맹 의장이었던 알렉산드르 파데예프의 권유로 소련작가동맹에 가입했던 조명희는 그의 문학 속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표명하였지만 문학의 정체성을 민족의 역사에서 찾고 공동체 의식을 문학을 통해 발산하고자 하였다.

1934년 작가회의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기본적인 예술창작 방법으로 채택하면서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구상이 제기되고 원동 고려인 문단에는 소련 공민으로의 행동이 요구되었다. 이때 제기된 시문학의 과제는 사회주의 건설, 새로운 인간, 프롤레타리의 투쟁, 현재의 역사적 과정의 다양한 관련 사항 등을 환기시켜야 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때 사회주의 현실주의는 반서정적인 것이 아니라 반개인주의적으로 제시된다.⁴⁹⁾ 또한 민족은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지양하는 국제주의적 시각이 요구되었다.

조명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학을 통해 민족문화와 전통, 언어를 보존하고 자주적인 민족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본의 압제를 폭로하고 이산자의 존재성을 드러내며 ‘힘’의 문학을 주장하여 혁명의 정신을 잃지 않은 진정한 주체로서의 삶을 제기한다. 망명 후 조명희 문학은 사회주의 건설 하의 소련이라는 공간에서 그 이상에 참여하고 조선의 현실을 각성하면서 민족과 계급의 경계를 넘고자 하였다.

48) 강태수, 『기억의 한 토막-조명희 선생을 회상하면서』, 『문학신문』, 1959년 5월 7일자, 3면.

49)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기본원칙』(알렉산드르 파데예프, 슈미트, 슈람 편, 문학예술연구회 미학분과 옮김,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구상-제1차 소비에트작가전연방회의 자료집』, 태백, 1989, 107~115쪽).

〈표 2〉 조명희 망명 이후 작품 수록 현황

저자	분야	작품	발표지	계재	재수록	계재
조생	시	짓밟힌 고려	선봉	1928.11.7.	로력자의 고향(조명희)	1934
조생	시	십월의 노래	선봉	1930.11.7.	로력자의 고향(조명희)	1934
조생	시	(불세비끼의) 봄	선봉	1931.3.25.	로력자의 고향(조명희)	1934
조생	시	녀자공격대	선봉	1931.4.4.	로력자의 고향(조명희)	1934
조생	시	맹서하고 나아서자	선봉	1934.6.3.	로력자의 고향(조명희)	1934
조생	시	‘오일’ 시위운동장에서	선봉	1934.6.3.	로력자의 조국(조명희)	1937
조생	시	이우 채옥에게	선봉	1935.3.8.	로력자의 조국(조명희)	1937
조생	시	까드리어, 너이의 짐이 크다! (조선 사범대학 제1회 졸업생들 앞에)	선봉	1935.6.30.	로력자의 조국(조명희)	1937
조생	평론	아동문예를 낳자(1)	선봉	1935.3.18.		
조생	평론	아동문예를 낳자(2)	선봉	1935.3.21.		
조생	평론	조선의 놀아들을 개혁하자(1)	선봉	1935.7.30.		
조생	평론	조선의 놀아들을 개혁하자(2)	선봉	1935.8.3.		
조생	평론	『로력자의 고향』에 실린 시들	로력자의 조국	1937		
조생	평론	이류분자들의 작품을 따로 떼어서	로력자의 조국	1937		
		머리말	로력자의 조국	1937		
	시	아무르를 보고서			레닌기치	1984.8.10.
	시	공장			레닌기치	1984.8.10.
	동시	어린 두 나무군		1930	레닌기치	1984.8.10.
	동시	샘물		1930	레닌기치	1984.8.10.
	동시	눈싸움		1930	레닌기치	1984.8.10.
	동시	새들의 회의		1930	레닌기치	1984.8.10.
	동시	푸른 편지		1930	레닌기치	1984.8.10.
	동시	소금쟁이		1930	레닌기치	1984.8.10.

조명희 작가는 다양한 문예활동을 통해 남북 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분단이라는 이념적 대립 상황과 사회주의 사상을 선택하여 소련에 망명하였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의 방대한 문예와 문학관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기에 그의 문학사적 위상과 전망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 문학사 서술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남북한을 넘어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위상을 점검하는 실증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남북한 문학장에서는 이념적 제약이 작용하여 문학사 구성과 서술방식이 편향되어 있다. 이에 남북한 문학사를 상호 재평가하고 상호소통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정전의 작업을 제시할 수 있는데 조명희 문학은 남북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유산으로 남북 문학사 점점으로 존재한다.

조명희의 문학사적 위상을 다루는 남북한의 문학사와 문예지 선집 등을 비교하면 동시에 그의 1920년대 문학에 주목한다. 그의 문학에 나타난 낭만성에 대해 북 문학에서는 낭만주의, 관념주의로 치부하고 남에서는 신낭만주의의 현상으로 고찰하기도 한다. 또한 그의 문학을 사실주의 문학의 계보로 보는 점은 남북 문학사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남한 문학사가 프로문학과 사실주의로 본다면 북한 문학사에서는 사회주의사실주의로 확장시킨다.

조명희 문학을 통해 남북의 1925년부터 1935년 카프 문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문학에 나타난 국제주의적 시각, 사회주의 근대와 탈식민적 근대성을 고찰하는 것은 남북 문학은 넘어서 동아시아 문학, 세계문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법론에 해당할 수 있다.

그의 망명 후 문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망명 후 문학에는 소련 사회주의가 제시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지만 반일사상, 조국해방 의지와 민족적 자긍심이 드러난다. 이는 한인문학의 기반이 되고 망명문학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조명희 문학을 통해 디아스포라 문학의 포용과 문학사 편입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위상을 점검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자료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하명·류만·최탁호·김영필, 『조선문학사(1926-194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류만·리동수, 『조선문학사 9(192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기 문학)』,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_____, 『조선문학사 7(19세기 후반-1926년 문학)』,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류희정 편찬, 『1920년대시선(3)』, (현대조선문학선집(1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_____, 『1920년대 수필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편, 『1919~1930년의 문학』, 『조선문학통사: 현대문학』, 1958.
 안함광,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56.
 _____, 『조선문학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
 엄호석, 『조명희 연구 - 그의 인간과 예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은중섭, 『조선문학사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 사회과학출판사, 1986.
 조명희 외, 『꽃피는 땅』, 알마아따: 사수식출판사, 1988.
 조명희, 『낙동강』, 문화출판사, 1950.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 하』, 과학원출판사, 1959.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편, 『락동강』 현대조선문학선집(11), 문예출판사, 1991.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소설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_____, 『현대조선문학선집(7): 희곡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황동민 편, 『포석 조명희 선집』, 쓰련과학원동방도서출판사, 1959.

2.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재용·이상경·오성호·허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김중희 엮음,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9.
 알렉산드르 파제예프. 슈미트, 슈람 편, 문학예술연구회 미학분과 옮김,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구상 - 제1차 소비에트작가전연방회의 자료집』, 태백, 1989.
 우정권, 『조명희와 『선봉』』, 역락, 2005.
 윤홍로, 『한국근대소설연구』, 일조각, 1980.
 이명재 편저, 『소련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이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태학사, 1993.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 월인, 2005.

정덕준 편, 『조명희』 새미, 1999.

3. 논문

1) 남한 자료

김영미, 「연해주·조명희·이데올로기·모국어」, 『현대문학이론연구』 7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고명철, 「제1차 세계대전의 시계를 통해 본 조명희의 문학」, 『한국언어문화』 66집, 2018.

김낙현, 「조명희 시연구 - 구소련에서 발표한 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6집, 우리문학회, 2012.

김성수, 「소련에서의 조명희」, 『창작과 비평』 17, 창작과비평사, 1989.6.

_____, 「북한의 조명희 인식, 그 역사적 변천」, 『제7회 포석 조명희 학술심포지엄』, 동양일보출판국, 2018.6.

김열규, 「조명희 문학에 나타난 ‘소비에트 문학관’」, 『전망』, 1993.

김재용, 「연해주 시절 조명희 문학의 재인식」, 『한민족문화연구』 60, 한민족문화학회, 2017.

김재홍, 「<낙동강>과 <짓밟힌 고려>의 한 고찰」, 『한국학연구』, 인학대 한국학연구소, 1989.

민병기, 「망명 작가 조명희론」, 『비평문학』, 1989.

배은경, 「원동고려문단의 마지막 문학선집 『로력자조국』의 기록적 가치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인문학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_____, 「최초의 고려인 문학선집 『로력자의 고향』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슬리브학보』 34권 2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9.

배은경·임영상, 「원동 고려문단의 형성과 그 초기작품 연구 -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역사문화연구』 5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5.

이명재, 「포석 조명희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국제한인문학회, 2004.

이명재·오창은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 한국문화사, 2004.

임옥경, 「고려인 문학과 북한 문단광의 영향관계 - 조명희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3, 한민족문화학회, 2013.

장사선·우정권, 「조명희의 연해주에서의 문학활동에 관한 연구」,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최재봉, 「‘로력자의 고향’...연해주 망명 문단의 ‘문예지 1호 찾았다.」, 2018년 9월 4일자.

2) 북한 및 기타 자료

「<작가와 작품> 포석 조명희」, 『문학신문』, 1957년 3월 28일자.

「소련 작가 동맹 조명희 문학 유산 위원회로부터」, 『문학신문』 1957년 9월 5일자.

「우리의 실재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해부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위대한 시기에의 가장 값있는 문예작품을 창작하자!」, 『선봉』, 1934년 6월 3일자.

강태수, 「기억의 한 토막 - 조명희 선생을 회상하면서」, 『문학신문』, 1959년 5월 7일자.

기자, 「소련에서 출판될 조명희 작품집」, 『문학신문』, 1959년 8월 28일자.

_____, 「소련에서 포석 조명희선집이 발행된다(59.12 소련 과학원 동방도서 출판사)」, 1959년 11월 20일자.

김재하, 「포석 조명희의 소설 연구」, 『조선문학』, 1956. 9.

- 김헌순, 「엄호석 작 『조명희 연구』에 대하여」, 『문학신문』, 1957년 9월 26일자.
- _____, 「엄호석 작 『조명희 연구』에 대하여」, 『문학신문』, 1959년 9월 26일자.
- 리규철, 「<조명희 선집 락동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6년 7월 25일자.
- 리기영, 「포석에 대한 나의 인상」, 『문학신문』 1962년 2월 20일자.
- _____, 「추억의 몇 마디 - 포석 조명희 동지」, 『문학신문』 1966년 2월 18일자.
- 박창복, 「서정적인 요사(『락동강』에 대해)」, 『문학신문』 1966년 2월 18일자.
- 양원식, 「조명희 선생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자료」, 『레닌기치』, 1990년 4월 4일자.
- 정상진 저, 양원식 역, 「내가 겪은 강제이주 - 회상기」, 『고려문화』 통권 2호, 2007.
- 최재석, 「단편 『락동강』의 창작적 특성」, 『문학신문』 1963년 1월 11일자.
- 한설야, 「정열의 시인 조명희」, 『문학신문』 1958년 8월 21일자.
- 한식, 「조선문학에 나타난 국제주의 사상」, 『문학과 전진』, 1950.8.
- 한중모, 「《카프》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발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년 6호.

The Status of Cho Myung-Hee's Literature in the Literature Fields of South and North Korea

Lim Ok-kyu*

Writer Cho Myung-hee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literary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various literary activities. She is one of the most talked about writers in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literature in both Koreas. Cho Myeong-hee is variously evaluated as a national writer, folk writer, anti-Japanese writer, and exile writer. Nevertheless, his literature was not properly evaluated due to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of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prejudice that he chose socialism and defected to the Soviet Union. On the one hand, it is not easy to deal with his literary status and prospects because his vast view of literature and his view of literature form a diverse spectrum. However, this aspect can be a means of presenting a methodology for writing an integrated history of literature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era of unification, and is meaningful as an empirical data to examine the status of Korean diaspora literature beyond North and South Korea.

This article examined the status of Cho Myeong-hee's literature as a means of describing the history of inter-Korean integrated literature. This article examines Cho Myung-hee's history of research on North and South Korea and analyzes his historical evaluation of North Korea in depth.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literary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Cho Myung-hee's tendency appears as a criticism of modernization and an expansion of the

*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Cheongju University

genealogy of realism. He criticized the modernization of the colonial era while embodying the spirit of the colonial subject in the 1920s, and his realism creation methodology was variously inherited in South and North Korea.

In addition, this article closely examined the activities of Korean literary circles in the former Soviet Union from 1927 to 1938 after exile in the Soviet Union, and compared the percep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is, we will analyze the logic and meaning of Cho Myung-hee's literature in the Korean diaspora culture to prepare a communication horizon for North and South Korean literature.

Key words: Cho Myung-hee, Literature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modernization, literature of the Korean diaspora, mind consideration, realism